경인일보

파주시, 지적민원처리 우수사례 경진대회서 '최우수'

이종태 기자 입력 2021-12-29 18:35:11

파주시청 전경. /파주시 제공

파주시가 '지적민원처리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시는 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제2회 지적민원처리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특수시책 분야에 'DMZ 일원 미등록 토지 지적복구 추진' 사례를 응모해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대한민국 국토이며 소중한 역사 현장인 판문점에 주소가 부여되지 않아 정부기관 및 각종 포털 사이트에서 제각기 위치를 표시하는 등 혼란이 빚어지고 있어 'DMZ 일원 지적복구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남북한이 대치하고 UN군 사령부가 관할하면서 접근조차 어려운 상황에도 중앙부처 협의와 철저한 복구자료 조사를 통해 판문점이 위치한 진서면 선적리 및 장단면 덕산리 일원 총 135필지 59만2,329㎡의 지적을 복구해 대한민국 영토 주권을 회복했다.

시는 이어 남북 정상이 만났던 '자유의 집'과 '평화의 집'에 도로명 주소를 부여했으며, 2021년 개별공시지

가 결정 등 파주시 토지로 포함해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있다.

최종환 시장은 "판문점을 포함한 DMZ 일원 미등록 토지를 파주시로 행정구역 편입해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시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지적민원 혁신을 위한 특수시책을 발굴해 지적행정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더욱 높이겠다"고 말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